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AUGUST 2021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12

7월 Pelham Bay Golf Outing



7월 15일 Pelham Bay 골프장에서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6월 대회에 이어 7월 대회에도 40명 이상의 많은 회원이 참가하여 풍성한 대회가 이루어졌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고온 고습의 한여름 날씨가 예상되어 걱정하였으나 초반에는 맑이 제법 나는 더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풀 꺾여 전반적으로는 더위 고생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Shotgun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라운딩 후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lounge에서 푸짐한 저녁 및 시상식을 가졌다. 상당수의 회원들이 컨디션이 좋아 스코어가 평균적으로 좋게 나오며 따라 상을 받은 회원의 성적이 상당히 좋았다.

그동안에는 골프장과 식당 편의를 고려하여 골든클럽 행사를 뉴저지에서 많이 가졌으나, 진봉일 회원님의 끈질긴 권유로 Bronx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하니 그동안 참석이 적조했던 권태전, 김문경, 김우영, 박희병, 허용웅 회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고, 거동이 불편한 이대연 회원도 참석했다. 다음에는 Queens의 Clearview Park Golf Course에서 대회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또한 우리 구미에 따라 한식당만 찾을 것이 아니라 clubhouse에서 catering 한

음식을 먹으며 행사를 끝내니 비용은 다소 더 들었지만, 식당 이동 등 번거로움이 적어 참석회원들이 좋아한 것 같다. 다음 골프대회에는 원로 골프회원 중 지금은 라운딩에 직접 참석 못 하시는 이준행, 강영선, 최구진, 최수용 선배님 등 왕년의 골퍼들을 저녁때 잠시라도 들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Pelham Bay 골프대회 결과

골드티와 화이트/레드티의 2그룹으로 나누어 시상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Gold Group:

1 등 손갑수 2등 김우영, 성기로

White/Lady Group:

1등 최병우, 김병순 2등 천병수

Close Pin: 성기로, 홍종만, 김승호

골프대회 결산:

총수입: \$4,200

총지출: \$4,992.

골든클럽 8월 골프대회 안내

골든클럽 여성회원 피크닉 - 8월 19일



골든클럽 8월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날짜: 8월 12일 (목요일)

Teeoff: 11시 (shotgun), 10시까지 등록 바랍니다.

골프장: Walkkill Golf Club

40 Sands Rd, Middletown, NY 10941

회비: \$100

신청: 김정필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서울대 뉴욕 동창회 소식

2차 상임이사회 모임을 이 7월 29일 Bayside 소재 송산에서 금영천 회장 주재로 가졌다. 지난 7월 5일 Zoom Meeting으로 가진 1차 모임에 이어 이번 모임에서는 상임이사들의 대면 인사 및 NY 동창회 전반 상황과 앞으로 2년 동안 해야 할 일들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주 목표였다. 구체적 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빠른 시간안에 확대 이사회, 임시 총회를 거쳐 모든 동창 회원들 에게 집행부의 구성을 알리고 인준을 받는다.
2. 각 단과대학의 이사명단을 확보하고 이사회를 구성한다.
3. 동창회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교환.
4. 동창회 연말 파티 장소 확보.
5. 학사업과 장학생 선정에 대한 의견 교환

참석자는 성기로(이사장) 부부, 임도혁(공대 전 회장) 부부, 배상규(약대), 송웅길(대학원), 유은희(간호대), 연영재(공대 회장) 그리고 금영천(회장) 부부였습니다.



작년 Covid-19 집콕 기간 중인 7월 22일 '평상적인 일상생활'을 그리며 고애자 선배님 주선으로 여성회원 7명이 Fort Lee, Ross Dock Picnic Area 에서 Lunch Picnic으로 가졌던 행사(사진 참조)를



올해는 좀 더 큰 규모로 이어가려 합니다. 많은 여성 회원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운전기사의 참여도 허용합니다.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12시-3시

장소: Englewood Picnic Area, Englewood Cliffs, NJ Palisades Parkway exit 1에서 Hudson 강변으로 내려갑니다.

특기사항: 참석인원 25명 이상의 경우 Group Picnic Permit이 필요하며, 식사 및 음료 준비를 위하여 참석할 회원은 미리 연락 바랍니다.

연락: 고애자, 201-713-7688, koaeja21@gmail.com

김정필, 201-965-7759, jaypkim@keiusa.com

Computer class picnic



Covid 19 Pandemic으로 함께 모일 수 없어 부득이 Zoom video 강의로 대체된 컴퓨터연구원 문하생들이 2013년 Computer class 개설 이래 처음으로 7월 16일 Rockland Lake State Park에 함께 모여 12시부터 3시까지 피크닉을 즐겼다. 발기 설립자 최수용 원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폐암 투병 중임에도 더욱 열성으로 친직인 컴퓨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양인회 강사의 쾌유를 빌면서 정겹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Pandemic 이전에는 Flushing과 뉴저지 두 클래스를 운영하기에도 시간이 벅찼었는데 Zoom 화상 강의로 대체되면서 양인회 강사는 물론 문하생들도 지역에 관계없이 Atlanta, Virginia, Maryland에서도 불편 없이 수강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먼 길 달려와 총 69명 참가 예정 인원의 전원이 참가한 실속 있는 행사였다.

8년 전 초기에는 골든클럽 회원과 동문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골든클럽이 주관하는 컴퓨터 교실'로 가족, 친지로 대상을 확대하며 인근 지역의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Photo Gallery - 사진으로 본 우리의 일상



Pelham Bay 골프대회 후 만찬을 즐기는 회원들



여성회원 피크닉을 광고하고 있는 고애자 회원



이형순 조승자 고애자 홍예경 회원



김병순 천병수 김승호 김정필 회원



윤선구 송학린 김우영 허용웅 회원



컴퓨터 클래스 피크닉에서



컴퓨터 클래스 피크닉에서



7월 21일 손경택 홍종만 회장이 이준행 명예회장을 예방

미주동창회의 “퀘렌시아”를 꿈꾸었던 지난 2년

- 15대 회장 임기를 마치며 -

신응남(농대70) 15대 미주 동창회장

인간은 여느 동물과 달리 두 발로 서고 두 발로 걷는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스스로 걷기 시작한다. 비로소 자기다운 삶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행위이다. 이렇게 스스로 바로 서는 이 행위를 자립(自立)이라고 한다. 독립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익숙하고 편안하며 안주하고 싶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두려운 결단은 대단한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창세기의 아브람은 익숙한 아버지의 집 분향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 갔다. 우리는 40여 년 전 자의든 또는 타의든 관계없이 우리의 조국 분향을 떠나 이곳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왔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모진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드디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꿈꾸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 역사를 써 갔듯이 말이다. 이제 우리가 보낸 미지의 신대륙 땅에서의 40년 광야의 생활을 깨끗하게 견뎌내 마침내 이 미국 신대륙에서 든든한 뿌리를 내렸다.

2019년 7월 15대 회장 임기를 시작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묵상 속에 지난 2년 동안 제일 먼저 미국 곳곳에 흩어져 동창회와 연결을 맺지 않고 있던 동문들을 찾아 나서는 긴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24개월의 '민수기' 작업을 통해 1,700여 명의 동창회와 연락이 두절된 동문을 찾아내 동창회 명부에 올림으로서 인수받을 때의 동문 수 5,700명에서 2021년 6월 말, 임기 종료 직전 기준 7,438명의 동문의 명단을 확보하는 새 역사를 써냈다.

아울러 4년 전인 2017년 6월 동창회 차기 회장 출마 때 나의 출사표의 한 공약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고향이 될 “서울대학교 클럽”을 세우는 것이었다. 헤밍웨이가 오랫동안 자주 찾았다는 스페인의 투우장에 가면 투우장 한구석에 싸우다 지친 투우들이 기력을 회복하는 장소가 있다. 그곳을 스페인어로 "퀘렌시아(Querencia)"라고 부른다. 그 작은 공간에서 싸우고 지친 투우들이 다시 다가올 새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 지친 몸을 추스르며 새 도전을 준비하는 거룩한 곳이다. 미주동창회는 이곳 미국에서 우리들의 안식처인 “퀘렌시아”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꿈은 요원해 보인다.

한편 우리의 분향 모교는 한국 경제발전에 힘을 입어 지난 40여 년의 세월 동안 관악에 지식의 산실 웅장한 캠퍼스를 세웠다. 또한 서울대 총동창회는 10여 년 전 동창회 장학빌딩을 마포에 12층 높이의 한국의 40만 서울대 동문의 마음의 고향 안식처를 자랑스럽게 세웠다. 그러나 약 7,400여 명의 멤버를 자랑하는 미주동창회는 아직도 이 미국 땅에 “퀘렌시아”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0년 역사의 미주동창회는 매 2년 회장 임기가 끝나는 때가 되면 동창회의 귀한 자료들이 들어 있는 수십 박스의 언약궤를 메고 새 회장이

있는 도시로 긴 여정을 떠나야만 하는 슬픈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미국 이 땅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담아둘 장막을 기필코 세워야 한다. 이제 분향을 그리워하는 "망향가"는 이쯤에서 잠깐 멈추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우리와 우리의 이민 후배들이 문힐 이곳 미국에서 우리들의 "희망가"를 불러야만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삶 속에 "뫼"이 있다. 뫼는 살아 있는 자 모두에게 주어진 엄숙한 인생의 명령이다. 즉 "목숨" 과도 같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내게 운명으로 주어진 나의 "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려 최선을 다했다. 미주동창회 15대 회장 2년 임기 중 우리들의 안식처 "퀘렌시아" 집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재정자립을 위한 종신 이사 등록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뉴욕지역 동문들의 후원으로 50여만 불의 미주동창회 기금을 추가하여 주춧돌 하나를 더 쌓는 성과를 이루었다.

제2의, 제3의 주춧돌이 쌓여가서 마침내 이 땅에 “서울대 클럽”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온다. 지난 2년간 보내주신 후원과 성원 감사했습니다.

'15대 동창회보 기념집' 출간기념회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주 동창회에서 발간한 미주동창회보를 한 곳으로 엮은 '15대 동창회보 기념집'의 출판기념회를 8월 14일 (토), 12:00 - 3:00

pm에 Manhasset 소재의 Pearl East Restaurant에서 오찬으로 진행합니다. 참석 희망하시는 분은 8월5일까지 646-523-9606으로 연락주시시오.

What Is Life?

현대 생물학의 근간을 이루는 5개 Idea

윤현남(공대64)

사람들은 21세기를 주도하는 학문은 생물학(또는 생명과학)이라 한다. 지난 20여 년의 RNA 백신, 인간의 유전자 코드의 규명, 줄기세포 기술, 암의 자체 면역치료법 등은 일반인이라도 세상을 뒤바꿔 놓을 중요한 발견임을 동의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발전의 내용을 약간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같이 신이 날 것 같다. 나는 생물학과는 멀리 살아왔다. 은퇴 후 intellectual한 자극이 필요해 세상이 떠들썩해 하는 생명과학을 조금 공부해 보기로 했다. 그런 수년이 생명과학에 대한 내 인식을 180도 바꾸었다. 축적된 지식의 양도 엄청나고 또 획기적인 발견을 이끌어 낸 학자들의 통찰력은 Newton, Einstein에 뒤지지 않았다. 그들이 tackle 하고 있는 연구과제들은 경이 그 자체이고 연구원들의 의욕과 자신감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마저 가슴을 뿌듯하게 해준다. 이 글에서는 문외한이지만 내가 느끼는 excitement을 소개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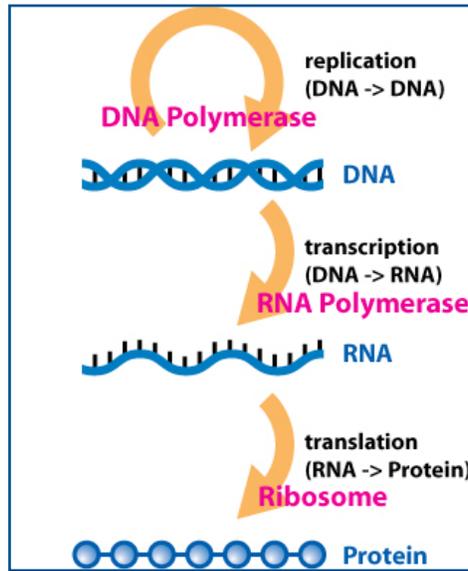
위의 "What is life?"는 노벨상 수상자인 Paul Nurse가 금년 출간한 책의 제목이다. 거대한 질문을 석학으로 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대의 생명, 생물에 대한 지식을 일반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책이다. 1950 년대의 DNA(DeoxyRiboNucleic acid)의 구조와 기능의 발견이 모든 생명과학에 혁명을 일으켰고 Nurse의 책은 이 혁명의 현재까지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Life(생명, 생체)의 생물학적 정의를 인간을 예로 표현하자면; 1) 세포 하나로 출생하여 생존하고 성장하여, 2)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3)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유전 시스템을 가져야 하고 (믿기 어렵겠지만 사람이 자손에 주는 것은 DNA 한 줄밖에 없다. 살면서 배우고, 쌓아 온 것들은 전달되지 않는다), 4) 하지만 이 유전 시스템은 DNA 차원에서 도입된 돌연변이는 다음 세대로 전달하여 인류공동체 차원에서의 변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1950년대의 DNA 혁명은 생명의 모든 process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방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Nurse는 생명을 이해하려면 아래의 다섯 가지 관점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 세포; 2) DNA와 유전; 3) 진화론; 4) 생화학 반응 network; 5) 생명과 information.

1) 생명의 원점에 세포가 있다.

세포는 생명의 원천 단위이다. 너무 미소해 맨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다. 지구상의 첫 세포는 약 40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추정한다. 지구상에 있는 1천1백만 종의 생체들의 조상은



그 세포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단세포 생물이나 또 무게가 180톤이나 되는 청고래도 이 미미한 세포의 후손이다.

우리도 모두 세포 하나로 시작했다. 엄마 자궁벽에 붙은 한 세포가 자신을 복사해 둘로 되고, 네 개가 되고 그를 7~8번 반복하여 줄기세포들의 집합이 되고 다음에는 어느 세포는 피부세포가 되고, 다른 세포는 신경 세포가 되고, 이런 특수화와 반복을 되풀이하여 아기가 되고, 어른이 되는 것만도 신기하지만 그사이에 말도 배우고, 의견도 생기고, 감정도 느끼는 인간이 되는 모든 지침이 처음 세포의 어디에 쓰여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게 신비스럽다.

세포는 크기가 미미하지만, 내부의 구조는 모든 생명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잡하다. 잘 발달된 생물들의 세포들이 공유하는 조직은 생명의 지침인 DNA의 저장고인 세포핵이다. 크기만 비교해도 얼른 이해가 잘 안 된다. 일반적으로 세포의 직경은 2~5 마이크로 (머리카락 직경의 20~50분의 1)

정도인데 사람 DNA의 길이는 2미터 정도이다. 어떻게 DNA가 세포 안에 packing 될 수 있나 도 기적 같다. 더 신기한 것은 DNA 한 줄에는 네 핵산(간단히 A, C, T, G 글자)이 일정한 순서로 3천만 개가 연결되어 있다. 세포가 분리될 때마다 DNA 전체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복사가 된다. 한 글자만 틀려도 새 세포는 죽든지, 유전병을 갖게 되든지 아주 희귀한 경우에만 생존하는 변이 DNA가 된다. 일생 살면서 수행하는 세포 복사, 분리하는 수는 천문학적인데 거의 error 없이 진행되는 것은 경악할 수준이다.

2) DNA와 유전자

2003년 인간 DNA의 sequence 전체가 규명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간에게는 22,000 개의 유전자(gene)가 있고 이 모두가 DNA 안에 포함되어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 DNA의 복사와 세포의 분리가 유전의 핵심임도 증명되었다. 물론 생물 중에는 인간처럼 부모 두 사람의 DNA들이 합해지고 편집되어 2세 DNA를 구성하는 extra 과정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DNA 서열은 오늘날 지구의 모든 사람의 DNA 서열과 거의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해준다. 또한 수만 년 전 선사 시대의 조상들의 것과도 거의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사시대 조상과 나를 구별하는 돌연변이는 모두 합쳐서 전체 DNA 코드의 1%도 안 된다.

3) DNA의 돌연변이와 자연도태가 다양한 생물계를 만들었다.

생체계의 다양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미 150년 전에 Darwin은 생체의 돌연변이(random variant)와 자연도태(natural selection)에 근거한 진화론을 제안했다. 현재의 진화 개념은 DNA 속의 유전자 중의 극히 미소한 부분이 무작위 하게 변이하고 분리된 세포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적 차이는 개별 생체를 독특하게 만들고 또 왜 생체의 종이 오랜 시간을 통해 고정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지를 설명해 준다. 삶은 끊임없이 실험하고 혁신하고 변화하는 자연에 적응한다. DNA의 안정성과 변화 능력의 공존이 다양한 생물계를 주도해 나간다.

다음 호에서는 생명의 화학반응 network과 정보 network을 간단히 기술할 예정이다.

(재미있게 읽은 책)

신의 지문, 사라진 문명을 찾아서

Fingerprints of the Gods, The Evidence of Earth's Lost Civilization by Graham Hancock

오순문(사대68)

저자 Hancock는 1995년 '신의 지문'을 통해 기원전 1만 년 이전에 발달된 인류문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고대문명의 존재를 풍부한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노아 홍수 이전의 고대문명에 대한 관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지도의 불가사의

책의 첫 장에는 1513년경에 옛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피리 레이스 제독이 Sultan에게 올렸다는 한 장의 고지도가 소개된다. 이 지도는 4세기경의 여러 지도들을 복사한 것이라는데, 바닷속까지 포함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지구에는 그런 땅이 없었다. 그 후 1958년경 정밀지질 탐사를 하면서 그 지도가 얼음 2km 밑의 남극대륙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1818년까지는 존재조차 몰랐던 남극대륙에서 2km 얼음 밑에 파묻혀 있는 해안 산맥 수로의 모습을 정확히 그렸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 고지도에는 정확한 경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경도기가 발명되어 사용된 건 1761년 이후였다. 따라서 이 지도는 6,000년 전 남극이 열기 전에 정확한 지도를 그릴 줄 아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Hancock는 한 장의 옛날 지도를 펼쳐 보이면서 신석기, 구석기 시대로만 알고 있었던 만여 년 전 시기에 발달된 고대문명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고 왜 사라졌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그 흔적을 찾아 나선다.

기억을 상실한 인류

Peru 나스카 고원의 지상 그림과 비라코 차라는 Inca 문명의 발상지와 Bolivia의 Machu Picchu 등을 거치면서 고대 문명마다 공통으로 신화화되어 나타나는 멸망 신

화를 소개한다. 그중 한 예로 아메리카 호피족에 전승되는 종말론은 “최초의 세계는 하늘과 땅에서 나온 불이 모든 것을 태워서 파괴하였다. 두 번째 세계는 지구의 지축이 뒤집어져서 얼음으로 뒤집혔고, 세 번째 세계는 대홍수로서 끝이 났다. 현재는 네 번째 마지막 시기이며 인류가 창조주의 계획대로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림] 피리 레이스 제독의 지도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인 춘향이, 홍길동이, 흥부나 심청이가 실제 인물이었듯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신화나 전설들도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가 기원전 3000년경 고대국가인 수메르(Sumer)의 Gilgamesh 서사시에서 전해졌듯이 모든 문명권에서는 한결같이 인류가 겪었던 대홍수를 신화나 전설의 형태로 기억하고 있었다. 시베리아에는 백 년 전만 해도 맘모스 식당이 있었다. 봄이 되어 땅이 녹으면 묻혀 있던 죽은 맘모스가 드러나는데, 주민들은 상아는 내다 팔고 고기는 식당에서 구워서 팔았다고 한다. 맘모스의 상아는 로마 시대 때도 거래가 되었던 인기 품목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수의 맘모스가 왜 하루 아침에 뱃속에 푸른 풀도 소화하지 못한 채 죽었느냐는 점이다. 대홍수와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고대문명의 파괴, 그리고 인류는 모든 걸 망각하고 원시 구석기 시대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건 아닐까?

기차 피라미드(Giza Pyramid)

이집트와 멕시코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의 거의 모든 문명권에는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중 이집트의 기차 피라미드는 현대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많은 수수께끼를 안고 있다.

약 2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기차 3개 피라미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밀도와 함께 10450년 전 오리온 좌 세별의 배열과 밝기를 나타낸다. 하늘로 향하는 통로는 오시리스 별자리를 향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피라미드의 바닥 4각형 모서리는 1% 오차 이내로 정확히 동서남북의 방향을 가리키고, 높이는 밑면 4각형 중심에서 모서리까지의 길이와 같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공의 반쪽과 같은 모양이 되는데, 지구의 반쪽을 나타내면서 그 크기는 실제 지구의 43,200분의 1이다. 그런데 43,200이라는 숫자는 지구가 마치 팽이가 도는 것 같은 세차운동을 하면서 태양을 도는데, 지구의 회전축이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그 세차주기가 43,200년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그 시대에 수백만 개의 거대한 돌로 피라미드를 정확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 지구의 크기, 회전축 23.5도의 기울어짐, 지구의 세차운동, 세차운동의 주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들의 과학 수준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지식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 가르쳐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누가? 왜? 수백만 개의 무거운 돌들을 정교하게 쌓아 올렸고, 그들은 피라미드를 통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스핑크스는 기원전 7000-5000년 때의 홍수로 인한 침식 자국으로 미루어 봐서 최소한 1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집트 역사책에서만도 모래 속에 파묻혀 잊혔다가 다시 발견되기를 네 번이나 반복했다 한다.

기원전 3200년경 이집트에서 일어난 신석기 부족 문화 시대에서 조직화된 왕조문화로의 빠른 변화, 그리고 문자, 건축물, 예술과 과학 등에서 믿을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저자는 “이집트 문명이나 고대문명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수받고 물려받은 것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 UFO나 외계인, 고대문명, 불가사의와 같은 책들을 읽으며 흥미와 호기심을 키워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비현실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었는데, Hancock은 마치 Indiana Jones같이, Jurassic 공원과 같이 성인들에게 잊고 살았던 고고학에서의 상상력과 판타지를 일깨워 줬다.

신의 지문은 1995년 출판된 후 세계적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이나 고대문명, 기후변화 같은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토론, 비판의 글들이 홍수를 이루면서 오히려 또 다른 좋은 책들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자칫 지루할 거 같은 고고학이나 고대문명 분야에서도 만약 우리가 만 년 전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판타지가 있을 수 있을까?

N'Golo Kante

-- Soccer's the most Unsung Hero

정도현 (공대57)

Late last month, the 2020 European National Championship⁽¹⁾, aka EURO, started a month-long tournament. The EURO is the nation's second most prestigious soccer TMT after the World Cup. It is held every 4 years (between the World Cup years). Due to the Covid-19, 2020 EURO is held this year. FIFA & UEFA are the governing body of the 55 country membership. Through the qualifying process, just like in the FIFA World Cup, 32 countries are chosen, and going through group stages & knockout phases to reach to the final.

The favorite is France, the winner of 2018 FIFA World Cup. France played against the always strong Germany a couple of days ago. It was a no contest --- France totally dominated. France is loaded with world's top shining stars such as MBappe, Pogba, Griezmann, Pavard, Benzema, but an obscure name pop out as an addendum during the major TMT -- "N'Golo Kante".

N'Golo Kante plays a central midfielder for the French national team. He is a French/African, a small in feature, 5'-6" & 154 lbs, has a very quiet and modest nature. Most viewers never notice him, except the game's urgent and critical moments. This omnipresent player with an incredible work rate and stamina is somehow present at the crucial moments during the game to orchestrate the game's destiny bending to its will. He has been one of the very few in the history of the game who, possessed effortlessly combined speed, anticipation and



exquisitely-timed tackling as a defensive player. Soccer experts wondered that he may have a different kind of lung. He runs in average more than 12 miles during the game, while most players run 6 miles. He guards opposing team's best player disrupting their rhythm. He plays for Chelsea in the EPL during the season. His work on Man City's Kevin de Bruyne (the best midfielder in the world) is the main reason Chelsea beat Man City in the UEFA Champion's Final. Although Soccer fans are less appreciative to his value to the team, he is widely valued by coaches and teammates. He wears jersey No. 13 for France. In case you see him on TV during the EURO TMT, you might notice that he is always on screen. That means he is always where the ball is. I think he should be the "Ballon d'Or" (Most valuable Player) winner. As someone said, "He is always in the right place and at the right time."

 (1) Italy won over English footballers in post-match strokes after 1:1 tie in regular time in the 2021 European National Championship final.

회원 명단 (110명 / 2021-07-20)

강교숙	김상만	성기로	유무영	임호순	추재욱 한영수 한용오 한태진 한용웅 허용사만 홍정표 홍지복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영덕	손갑수	윤선구	정도현	
강영선	김영만	손경택	윤종숙	정수일	
계동휘	김우영	손대홍/ 남중현	윤현남	조달훈/ 조승자	
고애자	김익성	손옥화	이강홍	정해민	
곽상준	김인형	송근숙	이준	조상근	
곽선섭	김재경	송용길/ 송현자	이대연	주상선	
곽승홍	김정필	송학린	이대영	주재양	
구달희	김종욱	신진식/ 이정자	이범선	진봉일	
권정덕/ 홍선경	김창수	신영남	이수호	천병수/ 천종화	
권영대	김태일	양인회	이용대	최구진	
권태전	김현중	오성	이전구	최병우	
금영천	노용면	오순문	이종대	최수용	
김광수	민준기	오용호	이종석	최순채	
김광현	박기환	오유섭	이준행	최준희	
김동건	박준구/ 최숙희	오인석	이행순	최진영	
김문경	박희병	유규환	이흥빈	최철용	
김문연	배상규		임도혁	최학주	

2021년 연회비 납부 명단 (85명 / \$8,050 / 2021-07-20)

강에드	김병순	손갑수	오유섭	이흥빈	최준희 최철용 한영수 한용오 한태진 한용웅 홍선경 홍지복 홍종만/ 홍예경
강교숙	김상만	손경택	우규환	임도혁	
강영선	김우영	손대홍/ 남중현	유무영	임호순	
계동휘	김익성	손옥화	유선구	정수일	
고애자	김정필	송근숙	윤종숙	정해민	
곽상준	김한중	송현자	윤현남	조달훈	
곽승홍	김현중	송학린	이강홍	조승자	
권정덕	김정필	신진식/ 이정자	이대연	주상선	
권태전	민준기	이전구	이수호	주재양	
금영천	박준구/ 최숙희	이정자	이용대	진봉일	
김광수	박기환	송근숙	이종대	천병수	
김광현	박희병	양인회	이종석	천종화	
김동건	배상규	오순문	이 준	최병우	
김문경	성기로	오용호	이행순	최수용	
김문연				최순채	

2021년 후원금 납부 명단 (23명 / \$11,470 / 2021-7-20)

곽승홍300	손경택1,000	우규환200	이흥빈100
권정덕200	송학린1,100	윤선구200	임호순300
김광현200	신진식300	이강홍200	정해민1170
김한중300	양인회200	이전구1000	최수용500
노용면200	오용호100	이준행2,000	최철용300
성기로300	오유섭500	이행순200	한태진500

2021년 입학비 납부 명단 (4명 / \$800 / 2021-7-20)

남중현	금영천	김한중	윤종숙
-----	-----	-----	-----

2021년 발전기금 납부명단 (1명 / \$10,000 / 2021-7-20)

이준행 1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골든클럽 2021년 행사 일람 (2021-07-20)

1월		Golden Club Directory 발간
3월	3월 27일(토)	신년교례회 (정기총회)-취소
4월	4월 14일(수)	Hiking - Harriman State Park 13명참가
	4월 22일(목)	Opening Golf Outing - Sunset Valley 38명참가
5월	5월 12일(수)	Hiking
	5월 19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Wallkill 40명참가
6월	6월 10일(목)	Golf Outing - Philip J. Rottela Golf Club 44명 참석
	6월 17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74명 참석
7월	7월 15일(목)	Golf Outing -Pelham Bay
8월	8월 12일(목)	Golf Outing -Wallkill Golf Club 11시 shotgun
	8월 19일(목)	여성회원 피크닉
9월	9월 16일(목)	Golf Outing
	9월 30일(목)	Picnic
10월	10월 6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1월	11월 4일(목)	Golf Outing
12월	12월 4일(토)	동창회 송년회
1월	미정	플로리다 골프트립
3월	3월26일(토)	신년교례회



8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곽상준(약대55)
- 김상만(법대52)
- 송용길(대학원)
- 윤현남(공대64)
- 이대연(약대65)
- 정해민(법대55)
- 홍종만(공대64)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공적집회가 허용될때까지는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학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